

“전남 친환경 농업 발전에 매진할 터”



전남선관위 동신대서 선거문화 강의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동신대학교에서 선거문화 강의를 실시, 김양호 상임위원이 선진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정치자금 이해하기’를 주제로 강의했다.



서부경찰서 기도막한 노인 살린 택시기사에 감사장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5일 기도가 막힌 승객을 태우고 교통체증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순찰차의 도움을 받으며 인근 병원까지 주행한 택시기사 전 모씨에게 10일 감사장을 수여했다.

최범채 시엘병원장 국무총리 표창

해외 난임환자 지원 건강한 아기 출산 기여

최범채 시엘병원 병원장이 제13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과 육아 환경조성 및 지원에 앞장서온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2시 KBS아트홀에서 임산부의 날 기념 행사를 갖고 유공자 표창식을 가졌다.

최 원장은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세계에 전파하고 해외 난임환자 등을 유치, 국내 의료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왔다. 뿐만 아니라 국내 난임환자 시술건수 1만2,400여건, 외래환자 10만여건을 진료해 임산부의 건강관리와 건강한 아기의 출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통령 표창은 미혼부 무료분만 지원(1,500건 이상)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의 진료 및 분만 지원, 지역사회 내 성폭력 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공적으로 고은여성병원 고은선 병원장이 수상했다.

국무총리 표창은 최 원장 외에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 지원사업의



의학적 전문 및 의료현황 분석을 통한 의료비 지원 정책 수립에 기여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이우령 교수, 더불어 지하철 내 임산부 배려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추진한 서울교통공사 이선영 과장이 함께 수상했다.

10월10일은 풍요의 달(10월)과 임신기간(10개월)을 의미하는 날로써, 임신·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이 이뤄지도록 사회적 지원 확대와 배려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됐다.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서울 영등포구 KBS아트홀에서 기념행사를 갖고 임산부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의료상담, 임신부 체험, 배냇저고리 만들기, 태교음악회, 태교동화구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김중찬 기자

전남도 유기농 명인 1호 담양 ‘시목단감’ 라상채씨

유황·생석회·마늘즙 활용 재배... 연 소득 1억원 마을조합 설립·공동 선과장 운영 등 경쟁력 확보

유황과 생석회, 마늘생즙 등을 활용한 유기농 단감으로 역대 소득을 올리는 60대 농군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도 친환경 유기농 명인 1호인 담양 대덕면 ‘시목단감’의 라상채씨(62).

라씨는 지난 2007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단감으로 최초로 유기농인증을 받은 뒤 10년 넘게 유기농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2011년에는 전남도의 유기농 명인 1호로 선정됐다.

농사인생 40년에 이르는 라씨는 1980년대 후반 친환경농업에 도전했다.

하지만 친환경이란 단어조차 낯설었던 당시 수십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고, 생산량도 기존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러다 ‘땅심 돌우기’에 나서면서 그

의 고민도 단박에 해결됐고, 유기농 재배도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라씨가 처음 땅을 개간할 당시 과수원은 20도 정도의 경사지였는데,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 호밀·헤어리베치·귀리 등을 조성 재배해 지력을 높였다. 그 결과 물도 안 빠졌던 척박한 땅이 현재는 토양 산도(pH) 6.5, 유기물 함량 9% 정도의 특실한 땅으로 탈바꿈했다.

녹비작물 덕에 잡초가 거의 없으니피해 예초작업은 9월 중순 한 번만 한다. 여기에 토착미생물 발효 퇴비와 함께 자체적으로 제조한 석회유황합제와 마늘생즙을 4월 초부터 수시로 살포해 흰가루병을 예방하고, 감쪽지나방 등 병해충도 방제한다.

현재 라씨의 단감 농장 면적은 4.5ha에



이른다. 초생종·중생종·만생종의 품종을 고루 재배해 수확인력이 일시에 몰리는 현상을 완화했다.

라씨의 유기농 단감은 ‘시목단감’이라는 브랜드로 온라인과 한살림, 학교급식 등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5kg 상자당 3만원 정도로 일반단감보다 가격이 1.7

배 가량 높다. 연 소득은 1억 원에 이른다.

라씨는 단감 유기농법 노하우를 시목마을 주민들과 나누고 있다. 마을조합 법인을 설립해 공동 선과장, 저온저장고 등을 운영해 선과·저장 비용을 30% 이상 절감,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라씨는 “유기합성농약에 의존하는 농사법 때문에 농업인들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깨닫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게 됐다”며 “난치병을 앓다가 자연건강법을 통해 회복하면서 더욱 유기농업에 대한 신념이 강해진 만큼 앞으로 전남의 친환경농업이 더욱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농업인의 오랜 현장경험과 연구를 통해 개발된 저비용 유기농 실천 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산·보급하기 위해 유기농 명인제를 도입했다. 현장에서 창의적으로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유기농 명인을 지정하며, 현재 채소·과수 등 20명의 유기농 명인이 전남 친환경농업을 선도하고 있다. /정근산 기자



전남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문화제

가수 강원래 ‘다시 꾸는 나의 꿈’ 건강강좌

제2회 정신건강의날을 기념하는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 및 정신건강 문화제가 10일 ‘행복 전남, 정신건강 희망 PLUS’를 주제로 여수 문화홀에서 열렸다.

‘정신건강의 날’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이 지난해 5월 전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새로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전남도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기념식, 정신건강 강좌,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체험관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기념식은 정신질환 인식 개선과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행복 전남, 정신건강 희망 PLUS

’를 주제로 정신장애인과 가족, 도민들이 함께 완성하는 퍼포먼스 등으로 열렸다.

정신건강 강좌에서는 인기가수 클론으로 활동하다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 가수 강원래 씨가 나와 ‘다시 꾸는 나의 꿈’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 전남도민들에게 희망을 선물했다.

여수 문화홀 야외 광장에서는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체험관이 마련됐다. 살면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 자살 및 중독 예방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전남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진화 기자



전남대어린이병원 ‘학마을 병원학교’ 개교

특수교사 배치 장기입원 학생 치료·학업 병행

전남대어린이병원은 최근 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학마을 병원학교’ 개교식이 어린이병원에서 열렸다고 10일 밝혔다.

‘학마을 병원학교’는 지난해 9월 개원한 전남대어린이병원이 광주시교육청에 병원학교를 신청, 지난 3월부터 운영해 오다 7개월여 만에 개교식을 갖게 됐다.

이날 개교식에는 이삼용 전남대병원장과 구훈 병원장·최미순 광주선명학교장을 비롯해 광주시교육청·광주시교육지원청·특수학교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대어린이병원 7층에 위치하고 있는 ‘학마을 병원학교’는 광주선명학교

소속 특수교사 1명이 배치돼 순회학급 형태로 운영 중이다.

병원학교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해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료하면서 개인별 맞춤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환자 소속학교의 수업 일수를 인정받게 된다.

전남대어린이병원 국문 병원장은 “건강 장애로 장기입원과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해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환아들에게 최선의 치료와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중찬 기자

전매게시판

우리 이웃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전자우편 : jndn@chol.com

모집 ▲광주자연보전담사회 답사회원 모집=14일(일), 오전 6시 무등경기장 출발, 신불산(1,159m·경남 울산), 010-3666-3291.

▲전남산악회 산행안내=21일(일), 원주 치악산(1,282m), 출발장소: 염주체육관 오전 5시30분. 운진각 앞, 양동시장, 광주역 6시. 두암동 홈플러스 6시10분. 문의: 다음카페 전남산악회, 010-3642-5197, 010-5378-5702.

▲전남산악회 울릉도·독도탐방=27일(토)~28일(일), 울릉도·독도, 출발장소: 염주체육관(토) 오전 3시. 운진각 앞, 양동시장, 광주역 3시30분. 두암동 홈플러스 3시40분. 문의: 다음카페 전남산악회, 010-3642-5197, 010-5378-5702.

▲놀이마당 소리땅 사물놀이 동호회

회원 모집=매주 화·목 오후7시30분 010-4609-7463.

▲배드민턴 강좌=광주 서석초등학교 체육관 매주 월·금요일 오후7시~10시 010-8835-7355.

▲광주 무등합창단 단원 모집=매주 화요일 오전10시 광주각화동 각화문화회집 010-9440-2637, 265-9337.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합창단=불행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격려를 위한 혼성합창단모집 675-5955.

일림 ▲시민강좌=류영국 지오스티 대표이사 ‘광주 도시공간의 역사와 미래의 방향’, 16일(화) 오후 3시, 광주시 북구 루문동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역사관(학생탐 옆) 2층 강당, (사)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사업회 연락처 062-514-1929. ▲2018 광고인 한마당 체육대회=21

일(일) 오전9시, 광주고등학교 운동장, 문의 사무총장 이성길(26화·010-3627-0643).

▲북구 열린마음상담센터 무료상담=지역으로 전문의들이 직접 찾아가는 마음건강주치의를 실시합니다. 읍·우울·불안 등 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인터넷·도박·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들과 가족을 위한 무료상담 및 교육 실시(www.yohanacc.or.kr) 실시간채팅상담가능. 062-526-3370.

▲무료자선분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엠펙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謹 故人之冥福을 받는다 弔

故 정옥희 님 (83세) 윤보현씨(빙모상), 11일(목) 9시 30분, 정지:갑향공원, 특실9분향소	故 소남례 님 (89세) 김호선, 호석씨(모친상), 김용암씨(빙모상) 발인:11일(목) 10시, 정지:갑향공원, 특실302분향소
故 이갑임 님 (94세) 김덕희, 원희, 남희, 현희씨(모친상), 발인:11일(목) 13시, 정지:망월동 묘역, VIP장공	故 정명옥 님 (60세) 강현진씨(빙모상), 이방규씨(배우자상) 발인:12일(금) 8시, 정지:영락공원, 지하 3분향소

故 김이순 님 (94세)
임기옥, 태식, 정씨(모친상), 서성호, 박종석, 주복만, 유대삼, 임동백, 이병길씨(빙모상), 발인:11일(목) 9시, 정지:장성 동화면 선영, 특실 10분향소

그린장례식장(주) 24시간 대기 062) 250-4455
www.그린장례식장.com